

K리그1 2024시즌 개막...3·1절 동해안더비로 '킵오프'

오는 1일 전주에서 전북-대전도 맞대결 벌여

2일엔 광주-서울·인천-수원FC·강원-제주

3일에는 대구FC와 '유일 승격팀' 김천 격돌

프로축구 K리그1(1부 리그) 2024시즌이 개막한다.

이번 시즌 공식 개막전은 내달 1일 오후 2시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와 '2023 FA컵 우승' 포항스틸러스의 맞대결이다.

울산과 포항의 경기는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매치로, 동해안에 위치한 두 팀의 지역적 특성에서 더비 명칭이 붙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소개된 바 있다.

리그 3연패를 노리는 울산은 라이벌 포항을 잡고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딛겠다 각오를 다진다.

이에 맞서는 포항은 K리그1 FC서울로 떠난 김기동 감독의 후임인 박태하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을 노린다.

개막에 앞서 지난 14일, 20일 이틀에 걸쳐

홈 앤드 어웨이로 진행된 '2023-2024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전북 현대에 합계 스코어 1-3으로 패배(1무1패)한 포항은 라이벌인 울산을 누르고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전북이 대전하나시티즌을 홈으로 초대해 맞대결을 펼친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전북은 리그는 물론, FA컵, ACL 등 참가하는 전 대회 우승을 노린다.

개막 전 ACL에서 포항을 누른 전북은 다른 팀들보다 먼저 실전 감각을 다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년 연속으로 '라이벌' 울산에 리그 왕좌를 내어준 전북은 개막전에서 대전을 잡고 목표 달성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전은 올해 4년 차를 맞은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ACL 진출을 노린다.

김승대, 호사, 이순민, 아론, 강윤성, 이정택 등을 영입하며 전 포지션을 강화해 파이널 A(상위 스포츠) 진출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이 따른다.

실제 대전은 2023시즌 리그에서 전북을 세 차례 만나 1승2무로 우위를 점한 바 있다. 대전이 전북전 상승세를 이남까지 이기지 관심이다.

이튿날인 2일 오후 2시에는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광주FC와 FC서울이 만난다.

지난 시즌 이정호 감독 체제에서 리그 3위를 기록했던 광주는 또 한 번 이번 시즌 복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역시 김기동 감독을 영입한 데 이어 잉글랜드 축구 스타인 제시 링가드 등을 품어 울산, 전북과 함께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다.

상위권이 예상되는 두 팀이 첫 경기부터 맞대결을 펼칠 많은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4시30분에는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FC가 격돌한다. 조성환 감독의 지휘 아래 홈에서 강한 면모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12개 팀 감독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를 보인 인천과 김은중 신임 감독을 앞세운 수원FC의 치열한 한 판이 예상된다.

같은 시각 강원FC는 춘천송암스포츠타운으로 제주유나이티드를 초대한다.

지난 시즌 윤정환 감독 지휘 아래 극적으로 K리그1 잔류에 성공한 강원은 김학범 신임 감독 체제를 맞은 제주를 상대로 첫 승을 노린다.

K리그1 마지막 일정은 3일 오후 2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진행된다.

홈팀인 대구FC는 2024시즌 유일 승격팀인 김천상무를 상대한다.

선수비 후역습을 추구하는 대구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김천의 창과 방패 대결이 펼쳐진다. 뉴스



팬들과 함께 행복한 전남 드래곤즈! '오프트레이닝데이' 성료

전남 슬로건, '승리하는 전남!, 함께하는 드래곤즈!'

전남드래곤즈는 팬들과 함께 승격을 다짐하기 위해 지난 토요일 오프트레이닝데이를 진행하였고 성황리 마쳤다.

주장 고태원은 "동계훈련을 모든 구성원들이 성실하게 준비했다"면서 "팬분들을 뵈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며 팬분들과 함께 2024시즌을 시작하고 싶다. 우리는 승리할 준비를 마쳤으며 시즌 초반부터 승점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2024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은 오프트레이닝데이 속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근력 강화

를 위한 서킷 트레이닝과 특점력을 높이기 위한 슈팅게임 등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전남 팬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하이파이브 입장, 훈련 관전, 애장품 추첨, 프리타임 등 다양한 스킨십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전남 드래곤즈 서포터즈 미르가 준비한 2023 최고의 선수상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발디비야'가 상패와 상품을 전달받았다.

서포터즈 미르의 2023 선수상을 수상한 발디비야는 "서포터즈께서 너무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2024시즌도 서포터즈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많은 공격포인트와 승리를 하고 싶다"며 답했다.

이장관 감독은 "팬 분들이 훈련장에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선수들 모두 더욱 긴장하여 집중하여 2024시즌 초반부터 승점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2024시즌 각오를 전했다.

전남드래곤즈는 다가오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2 2024 홈 개막전을 김포FC와 치른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첫 시범경기 안타 '바람의 손자' 이정후... "다행히 좋은 결과 나와"

시애틀전 1번타자...3타수 1안타 1득점 '옆구리 부상 탓 시범경기 데뷔 늦어'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데뷔전에서 안타를 때려낸 소감을 밝혔다.

이정후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포츠데일의 스포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2024 MLB 시범경기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약 1484억원)에 계약한 이정후는 가벼운 옆구리 통증으로 출전을 미루다 이날 처음 시범경기에 나섰다.

올 시즌 팀의 톱타자로 낙점된 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방망이를 날카롭게 휘둘렀다.

지난해 올스타에 선정된 시애틀 투수 조지 커비와 마주한 이정후는 몸 쪽 공을 받아쳐 우전 안타를 때렸다. 1루수가 공을 잡으려 몸을 날렸지만 타구는 외야로 흘러나갔다.

MLB닷컴에 따르면 이정후는 경기 후 "커비는 매우 유명한 투수다. 투스트라이크가 났을 때 '그냥 맞히기만 하자'고 생각했다.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KBO리그와 비교에 대해서는 "직구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변화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28일(한국시간) 시애틀 매리너스와 시범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있다.

속도 같다. KBO리그와 MLB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다"고 짚었다.

허리 통증으로 시범경기 출전이 늦어졌지만 이날 안타와 주루 플레이 등을 선보이며 우려를 지워냈다.

안타를 치고 나간 이정후는 후속 타자 타이로 예스트라다의 땅볼에 상대 유격수 실책이

결정지 빠르게 2루에 안착했다.

사령탑도 이정후의 활약에 흐뭇했다. 멜빈 감독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늦어져) 오랜 기다림이었다"면서도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득점하는 모습이 좋아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정후의 주력을 높이 사며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도영 못지않은 윤도현...달아오른 KIA 내야 경쟁

KT전서 홈런 포함 4안타 2타점 맹타 변우혁·서건창 등과 내야 자리 다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윤도현(21)이 연습경기에서 매서운 타격감을 자랑하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KIA의 내야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윤도현은 팀의 2차 스프링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2차례 연습경기에서 9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 2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윤도현의 대표가 연습경기 2경기에서 나온 팀의 유일한 홈런이다.

27일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으나 첫 연습경기였던 KT 위즈전에서 솔로 홈런 포함 안타 4개를 몰아쳤다.

2022년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5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은 윤도현은 입단 당시 1차 지명 김도영(21)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윤도현은 스프링캠프에서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흡사한 타격폼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 데뷔를 눈앞에 두고 부상 악령을 피하지 못했다. 2022년 시범경기 도중 오른손 중수골 골절상을 당하면서 끝내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긴 시간 재활에 매진한 윤도현은 지난해 5월 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나 1경기만 뛰고 퓨처스(2군)리그로 내려갔다. 2군에서는 11경기에서 나서 타율 0.237 3홈런 6타점을 기록했다. 2년 동



안 소화한 공식 경기는 12경기에 불과하다.

올해 첫 풀타임 시즌을 꿈꾸는 윤도현은 연습경기에서 보여준 궤조의 타격감을 유지한다면, 즉시전력감으로 중용될 수 있다. 변우혁(24), 서건창(35), 김규성(27), 박민(23), 정해원(20) 등과의 경쟁 속에서 꾸준히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도현의 포지션인 2루수와 3루수에는 각각 김선빈(35), 김도영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주전급 백업 자원으로 거듭난다면, 이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많은 출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극상' 이강인 운명 쥔 황선홍...국가대표 선발할까

황선홍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안팎으로 어수선한 A대표팀을 위해 임시 사령탑을 맡으며 '소방수'로 나섰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27일 제3차 회의를 통해 다음달 열리는 태국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2연전을 위해 황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다.

3월21일 서울에서, 26일 태국 방콕에서 연전을 펼친다. 황 감독은 일시적으로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모두 지휘한다.

황 감독은 워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경질된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태국전 승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큰 과제는 선수단 내분 수습이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도중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마찰, 하극상 논란이 불거졌다.

이강인이 직접 손흥민이 있는 영국 런던으로 가 사과의 뜻을 밝혔고, 손흥민이 받아들이며 화해했지만 이강인을 향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협회 차원에서 당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원인, 정도에 대한 조사 의지가 없어 사실상 내분

은 뚜렷한 봉합 없이 일단락됐다.

대표팀의 경기력, 결과와 상관없이 황 감독이 수습에 대한 부담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몽구 협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 경질 발표 자리에서 내분에 대해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후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 주셔야 한다.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조항을 살펴봐지만 우리 소속 선수들이 아니다. 징계는 소집을 안 하는 것뿐이다. 추후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말할 이야기"라고 답했다.

다음달 11일 국가대표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황 감독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발 여부와 상관없이 뒷이야기와 여러 해석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황 감독은 지난해 2022 한중우아시아게임에서 이강인과 호흡을 맞춰 아시아게임 3연패를 이끌었다. 좋은 기억이다. 또 마찰의 시발점이 된 '탁구 게임'의 일원으로 알려진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설영우(울산)와도 아시아게임에서 3연패를 합작했다.